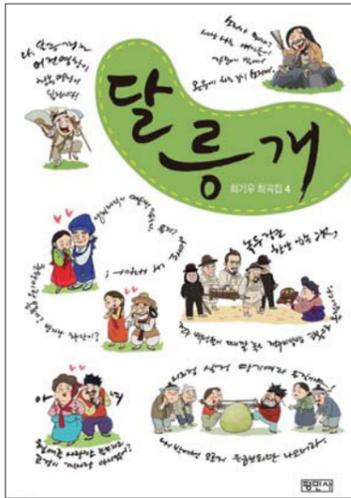


극작가 최기우, 희곡집 '달링개' 발간

전주·남원시 상설공연된 작품 등 다섯 편 담다

극작가 최기우가 네 번째 희곡집 '달링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작가에 따르면 '판'과 '소리'의 참 의미를 묻는 '달링개'와 동화농민혁명의 아쉬움을 풀어낸 '녹두장군 한양 압송 차(次)', '춘향전'과 '홍부전'의 이야기 틈새를 채우고 비껴 보며 다시 엮은 '아메도 내 사람이야'와 '월매를 사랑한 놀부', '시르렁 실경 당기여라 톱질이야' 다섯 편을 담았다. 대부분 전주와 남원에서 상설공연된 작품이다. '해기보따리'에서 제작한 '녹두장군 한양 압송 차(次)'는 전주한옥마을 주말상설공연으로, 고전에서 착안한 세 작품은 남원시립극단이 제작해 야간상설공연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흥겨운 낮과 밤을 선사했다.

극작가 최기우가 네 번째 희곡집 '달링개'를 글로 옮기며 서둘러 늙어가고 있다며 "글과 노동과 상상의 무게를 느끼며 부끄럽지 않은 글쓰기노동자의 길을 한 걸음씩 밟아갔다"고 말했다. 한편 극작가 최기우는 2000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소설)로 등단한 이후 연극·창극·뮤지컬·창작판소리 등 무대극에 집중하며 100여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특히, 전라북도의 역사와 설화, 인물과 언어, 민중의 삶과 유희, 흥과 콘텐츠를 소재로 한 집필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수상작으로는 대한민국연극제·전북연극제 희곡상과 불꽃문학상, 천인갈채상, 작가의문학 작품상 등이 있다. 전북일보사 기자와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사)문화연구창 대표 등으로 일했으며, 현재 최명희문학관 관장이다.



극작가 최기우 네 번째 희곡집 '달링개' /장은성기자

전주대 출신 셰프, 미슐랭 1스타 선정

한식조리학과 졸업생 엄태철 셰프

전주대학교는 지난 25일 발간된 '미슐랭 가이드 서울 2022'에 한식조리학과 졸업생인 엄태철(01학번) 셰프의 '소설한남'이 미슐랭 1스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슐랭 가이드(Michelin Guide, 미슐랭 가이드)'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가이드북으로, 매년 각 지역의 레스토랑에 미슐랭 스타를 부여하고 있다. 엄태철 셰프는 전주대 한식조리학과에서 한식의 기초부터 전통 한식의 심화까지를 탄탄히 다졌고, 3학년 때 미국으로 호텔 인턴십도 다녀왔다. 2007년 대학을 졸업하며 첫 직장은 한식 파인다이닝 폼 서울(미슐랭 1스타)이었는데 이곳에서 모던한식을 접했다. 이후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에 위치한 El TxokoDel Gourmet를 다니며 현지 레스토랑에서 실무를 익혀 서양요리도 실력을 쌓았다. 귀국 후, 대법원장 공관에서 대법원장의 의전을 수행하는 총괄 셰프로 활약했다. 엄태철 셰프는 "한식 전통의 멋을 현대적



왼쪽부터 김경태(14학번), 엄태철 셰프(01학번), 소은공(16학번)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졸업생. /장은성기자

전주대, 문화관광대학 취업 컨설팅 박람회 개최

관광산업 9개 기업 현직자 실전 면접·특강 실시

전주대학교는 지난 26일 문화관광대학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취업 컨설팅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워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회복되는 흐름에 맞춰 현재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의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관광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인재의 취업과 현장실습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국내 5성급 이상의 유명 호텔의 인사부서 임직원 6명과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공기업 관계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실전 모의 면접 컨설팅을 통해 재학생의 직무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을 조언해 줬다. 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실제 취업과 연결되는 기회도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심영국 학장(문화관광대학)은 "전주대 문화관광대학은 실용 학문을 다루는 대학으로서 학생들의 입학과 동시에 실무교육을 강화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며, "모든 교수진은 '뽑은 학생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각오로 재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문화관광대학은 2000년 설립연도부터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화정책을 비롯한 기업 CEO 및 실무자 특강, 산업체 견학, 멘토링 등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계 유수의 호텔, 여행사, 해외공관 조리사, 식품 및 의식, 패션기업 등으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책과 함께 듣는 무주 이야기' 북토크 열린다

(재)무주산골문화재단과 무주군이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 무주여행 관련 작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북토크 마당을 제공한다. 지난날 30일과 31일, 무주 안성면 복지회관 2층에서 처음 선보인 '문화마실 무주'에서 진행됐던 북 토크가 큰 호응에 힘입어 다시 한 번 개최되는 것이다. 군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오후 2시, 안성면 복지회관 2층에 마련된 문화마실에서 북토크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북토크 주제는 '책과 함께 듣는 무주 이야기'로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출판한 '무주에 어디 볼 데가 있습니까' 저자 정원선 작가와 '거기 사람 있어요'의 저자 무주군 공진보 건진료소장 '박도순 작가', 그리고 유기하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장도 자리에 함께한 가운데 무주에 관한 이야기를 책과 함께 솔직담백하게 나눠 보는 시간도 갖는다. 북 토크 참여는 다음달 3일까지 선착순 전화(063-245-6400) 신청을 받는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전 직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코로나19와 겨울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 재단 및 태권도원운영관리주식회사(이하 자회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재단과 자회사 전 직원들이 개인 연차 등을 활용해 무주군 보건의료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 월정직책급을 집중 비용으로 지원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근 미국 의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Medicine)을 비롯해 국내 의학 전문가들은 올해 겨울 독감 대유행을 경고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심진용 경영지원부장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독감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겨울철 태권도원의 근무 직원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이사장 월정직책급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 '오페라 라보엠'

어느덧 성큼 다가온 송년을 맞아 군산시립교향악단이 202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한다. 오는 12월 16일 저녁 7시 30분 군산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게 될 제143회 정기연주회는 군산시립교향악단이 군산시립합창단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백정현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오페라 '라보엠'을 선보인다. 라보엠은 오페라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불리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19세기 파리의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예술이라는 교감으로 모인 젊은 예술가들의 청춘, 아픔 그리고 사랑을 그린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현실적인 공감을 불러 일으켜 줄 예정이다. 파

리 어느 뒷골목 가난한 연인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와 가슴을 찌르는 주옥같은 아리아 선율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라보엠'은 오페라의 대가 푸치니의 최고 역작이다. 깊은 매력을 가진 국내 대표적인 여성 오페라 연출가 이희수와 차이콥스키극제공쿠르에서 여성 성악가 부문 우승을 거둔 소프라노 서선영, 독일 바이마르극장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이재식, 그 밖에 소프라노 김성혜, 바리톤 문용재, 베이스 전태현, 김준민, 박건우가 출연해 화려하고 사랑스런 노래와 앙상블을 이루며 시립교향악단의 웅장한 음향으로 가슴벅찬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티켓은 전석 무료로 티켓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할 수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호흡 맞춰 노래로

제5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합창제

2021년 12월 4일(토) 오후 3시~6시

전주 바울교회 2층 그레이스홀

주최: 전주매일신문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